

News release

스위스재보험,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실적, 전년 대비 12% 증가한 USD 37억 규모의 순이익 기록

- 스위스재보험 그룹,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실적, 전년 대비 12% 증가한 USD 37억의 순이익 기록; 이는 탄탄한 언더라이팅 및 투자 성과, 양호한 자연재해 상황에 기인함
- 손해 재보험(P&C) 사업부,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USD 23억의 순이익 기록; 자기자본이익률 23.3%
- 생명 재보험(L&H) 사업부,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USD 7억6300만의 순이익 기록; 자기자본이익률 17.0%
- Corporate Solutions 사업부,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USD 3억2400만의 순이익 기록; 자기자본이익률 18.7%
- Admin Re® 사업부,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USD 2억7000만의 순이익 기록; USD 2억6500만의 총 현금 창출
- Thierry Léger, 그룹 집행위원회의 신규 구성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발효일은 2016년 1월 1일
- 스위스재보험, 텐진 폭발사고로 인한 청구액이 약 USD 2억500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스위스재보험, 11월 중순에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 규제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함
- 스위스재보험 이사회, 2016년 4월 개최 예정인 연례주주총회(AGM)에서 Paul Tucker 경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

취리히, 2015년 10월 29일 – 스위스재보험은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USD 37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USD 14억은 3분기에 달성). 모든 사업부들이 이러한 실적에 기여했으며, 특히 생명 재보험(L&H) 사업부가 눈에 띄는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기초가 되는 매우 탄탄한 포트폴리오, 긴밀한 고객관계, 그리고 스위스재보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반영하고 있다. 9개월간 14.5%의 탄탄한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록했다. 그룹의 재무 실적을 고려하여, 스위스재보험은 자사주매입 계획을 신고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은 후 11월 중순에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2011-2015년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다.

그룹 CEO Michel M. Liès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스위스재보험은 2015년 들어 9개월 동안 매우 탄탄한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전히 순탄하지 않은 보험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도 2011-2015년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에 당사는 Admin Re® 사업부와 관련하여 상당 규모의 거래를 발표했는데,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Roman Lechner, Zurich
Telephone +41 43 285 2344

Thomas Holzheu, Armonk
Telephone +1 914 828 6502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SwissRe

이는 당사의 기준수익률(hurdle rate)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자본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기회입니다. 또한, 당사는 11월 중순에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연례주주총회에 의해 승인된 사항입니다."

스위스재보험 그룹, 9개월 동안 매우 우수한 순이익 기록; 3.8%의 탄탄한 투자수익률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모든 사업부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USD 37억의 그룹 순이익 달성에 기여했다 (2014년 동기 USD 33억).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적은 절제된 언더라이팅, 낮은 자연재해 손실, 그리고 생명 재보험 사업부의 준비금 환입 및 탄탄한 실적에 기인한 것이다.

9개월 동안의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14.5%였으며 주당 순이익은 CHF 10.19(USD 10.69)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CHF 8.52 (USD 9.51)).

2015년 9월 30일까지 9개월간 그룹은 탄탄한 3.8%의 연환산 투자수익률(ROI)을 기록했다. 동 기간 동안 그룹의 순투자수익은 USD 27억이었는데 (2014년 동기 USD 31억), 이러한 감소분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투자 자산, 그리고 주식 및 대안투자의 수익 감소로 인한 것이었다.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보통주 주당 장부가치는 USD 95.34 (CHF 93.13)로 감소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USD 101.78 (CHF 101.12)). 스위스재보험 그룹의 자본 포지션은 탄탄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자기자본은 USD 326억에 달했다. 그룹의 Swiss Solvency Test 비율은 스위스재보험의 위험허용도(risk tolerance)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한 Guardian Financial Services 인수로 인해 예상되는 20-25 퍼센티지 포인트의 영향 감안됨).

텐진 폭발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보험청구

2015년 8월에 중국의 항구도시 텐진의 일부를 파괴했던 폭발 사고는 아시아 역대 최대 규모의 인재로 인한 손실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위스재보험은 상기 폭발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세전 기준 약 USD 2억5천만에 달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스위스재보험의 손실 평가액은 변동될 수 있다.

손해 재보험(P&C) 사업부, 양호한 자연재해 상황에 힘입어 매우 탄탄한 실적 기록

올해 초부터 9개월간 손해 재보험 사업부는 USD 23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USD 24억). 9개월 동안의 이러한 실적은 탄탄한 기초 포트폴리오, 양호한 자연재해 상황, 그리고 긍정적인 전년도 현황에 힘입은 것이다. 이번 기간은 인재로 인한 몇몇 대규모 손실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텐진의 폭발 사건이 대표적이며 이는 동 사업부에 세전 기준으로 약 USD 2억3500만의 손실을 냈다.

올해 초부터 9개월간 합산비율은 84.8%이었다 (전년 동기 82.7%). 9개월 동안의 경과보험료는 USD 114억에 달했다 (전년 동기 USD 117억). 일정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경과보험료는 4%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 상해보험 사업의 성장, EMEA 지역의 보험료 증가, 그리고 출재 감소에 의해 주로 견인되었으며, 중국의 대규모 비례재보험 계약의 만료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생명 재보험(L&H) 사업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USD 7억6300만의 순이익 기록; 자기자본이익률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생명 재보험 사업부는 USD 7억63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4년 동기 USD 2억7200만). 이러한 증가는 탄탄한 영업이익, 이자비용 감소, 그리고 순실현이익이 주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수년간 시행된 경영진의 조치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지난 9개월 동안의 안정적인 실적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업이익률은 작년의 8.8%에서 올해 10.7%로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9개월간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17.0%를 기록했다. 이 사업부는 올해 말까지 10-12%의 자기자본이익률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수입은 USD 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USD 84억). 일정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수입은 5% 증가했다.

Corporate Solutions 사업부, 순이익 30% 증가; 자기자본이익률 18.7%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Corporate Solutions 사업부는 USD 3억24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USD 2억4900만). 30% 증가한 이 기록은 대부분 사업분야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보험 파생사업의 순실현이익에 의해 견인되고 자연재해 사고의 부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인재에 기인한, 중국 텐진의 폭발로 인한 손실은 세전 기준으로 실적에 USD 1500만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USD 25억의 경과보험료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인데 (전년 동기 USD 26억), 이는 여전히 순탄하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일정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경과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9개월간 합산비율은 91.9%로 개선되었다 (전년 동기 92.9%). Corporate Solutions 사업부는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드리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또한 일본의 2째로 큰 중개 허브인 오사카에도 사무소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나갔다.

Admin Re® 사업부, 탄탄한 총 현금 창출; USD 2억7000만의 순이익 기록

Admin Re® 사업부는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USD 2억70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USD 2억1900만). 이러한 순이익 증가는, Solvency II에 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리포지셔닝 중 매도된 국채에 따른 실현이익 증가와 영국의 연말 회계 결과의 최종확정에 따른 세금공제를 반영한 것이다. 2015년 초부터 9개월간 Admin Re® 사업부는 USD 2억6500만의 총 현금을 창출했는데 (전년 동기 USD 6억1500만), 전년 동기의 수치는 신용부도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했던 잉여 준비금의 환입과, 상대적으로 높았던 영국 회계 가치평가 결과가 포함된 것이다.

스위스재보험은 Guardian Financial Services를 인수한다고 2015년 9월에 발표했으며, 규제당국의 승인은 2016년 초로 예상된다. 이번 인수는 영국에서 선도 생명보험 포트폴리오 통합업체가 되기 위한 Admin Re®의 전략 실행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Aurora National Life Assurance Company 매각은 4월에 완료되어 Admin Re®는 미국 시장에서의 퇴장을 이어갔으며, 3분기에는 동 사업부가 인수한 HSBC 보험 계약이 Admin Re®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다.

3분기 실적: 그룹 전반적으로 매우 탄탄한 성과

손해 재보험(P&C) 사업부는 2015년 3분기에 USD 10억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2014년 3분기 USD 8억4200만), 이는 대규모 자연재해 관련 손실의 부재, 준비금 환입, 그리고 탄탄한 투자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환율의 변동에 의해 경과보험료는 USD 41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USD 43억). 일정 환율 기준으로 경과보험료는 1.4%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미국 상해보험 사업에 의해 견인되었다.

생명 재보험(L&H) 사업부는 3분기에 USD 2억68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USD 1억6000만), 이는 탄탄한 영업이익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비용에 힘입은 것이다.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수입은 USD 28억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는데 (전년 동기 USD 29억), 이는 영국에서의 신규 장기연금 계약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거래에 힘입은 것이며 환율 변동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된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11.3%로 개선되었다 (전년 동기 9.2%).

Corporate Solutions 사업부는 3분기에 USD 85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2014년 3분기 USD 1억300만), 이는 대부분의 사업 지역에서 영업성과 및 투자실적 개선에 힘입은 것이다. 일정 환율 기준으로 USD 7억9600만의 경과보험료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이는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합산비율은 90.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90.5%).

Admin Re® 사업부는 3분기에 USD 2100만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USD 5400만), 이는 순탄하지 않은 영국 투자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총 현금창출 규모는 USD 1억2600만으로 탄탄한 수준이었으며, 실적은 예상에 부합했다.

3분기에 그룹 투자수익률은 3.2%로 (2014년 3분기 3.5%) 탄탄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룹의 순투자수익은 USD 9억이었는데 (전년 동기 USD 10억), 이는 투자 자산의 감소에 따른 채권 수익 감소로 인한 것이다.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David Cole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텐진 폭발사고에 따른 대규모 손해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분기에도 매우 탄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 성과는 3개의 차별화된 사업부 체제하 다각화된 사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재보험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의 방침이 꾸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스위스재보험의 2011-2015년 경영목표 기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당사의 전반적인 성과는 제게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Thierry Léger, 그룹 집행위원회에 합류; 생명보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모든 부문은 Life Capital 사업부에 통합될 예정

스위스재보험 이사회는 Thierry Léger를 Swiss Re Life Capital Ltd의 CEO 겸 그룹 집행위원회 구성원으로 임명했으며, 그 발효일은 2016년 1월 1일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직책 하에 그는 그룹 내 생명보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 대한 그룹 집행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통합할 것이다. 그는 Admin Re® 사업부의 폐쇄 포트폴리오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상기 부서들의 전략적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한, 이에에는 당사 고객 및 파트너의 원보험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의 기존 업무도 포함될 것이다. Admin Re® 사업부의 명칭을 Swiss Re Life Capital 지주회사와 일관되도록 변경하는 작업도 포함되는 이러한 변화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현재 재보험 세그먼트 내에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보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기존의 사업 부문들은 Swiss Re Life Capital 사업부 내에서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회 의장 Walter B. Kielholz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희는 최근에 Guardian Financial Services 인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폐쇄된 생명보험 포트폴리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부가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진의 숙고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Thierry씨가 이 사업부문의 감독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 성장기회의 개발 및 장악하는 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Thierry Léger는 18년 전에 스위스재보험에 합류했으며, 스위스재보험의 손해 재보험 및 생명 재보험 사업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험을 쌓아왔다 (가장 최근에는 생명 재보험 상품 책임자 역임). 통합된 사업부문의 기존 경영진은 이번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Admin Re®** 사업부의 기존 CEO인 **Bob Ratcliffe**가 현재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인데, 이는 그의 전문성이 (특히 대규모 거래 실행 관련) 향후 **Guardian Financial Services**의 통합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사주매입 프로그램, 11월 중순에 개시될 예정

스위스재보험은 주주들에게 승인된 자사주매입 프로그램을 11월 중순에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스위스 인수위원회에 신청 및 그에 대한 승인 획득을 전제로 한다. 스위스재보험은 잉여자본이 존재하고 기타 사업기회가 내부적인 투자 기준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본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5년 3월에 자사주매입 프로그램 확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스위스재보험, 2016년 4월 개최 예정인 연례주주총회에서 Paul Tucker 경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

스위스재보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을 더욱 다양화하고 새롭게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2016년 4월 22일 개최 예정인 연례주주총회에서 **Paul Tucker** 경을 이사회 신규 구성원 후보로 제안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Paul Tucker** 경은 잉글랜드은행 부행장을 역임하면서 금융안정성을 담당했다. 그 이전에 그는 동 은행에서 1980년부터 다양한 고위 직무를 담당했다 (2002년부터 통화정책위원회 구성원 역임). 또한, 그는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운영위원회 구성원이었으며, 국제결제은행 이사회 구성원이었다. **Paul Tucker** 경은 1958년생이며 케임브리지 소재 **Trinity College**에서 수학 및 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앙은행에 대한 헌신과 관련하여 2014년 신년서훈(New Year Honours)에서 작위를 받았다.

이사회 의장 **Walter B. Kielholz**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당사 이사회 구성을 새롭게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저희는 **Paul Tucker** 경을 내년에 선출될 이사 후보로 제안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잉글랜드은행에서의 33년에 걸친 장기간의 경력은 금융시장, 특히 금융 안정성 분야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희 이사회에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 2015년 12월의 Investors'

Day에서 제시할 스위스재보험의 전략적 체계에 대한 업데이트

그들은 2011-2015년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지속 확신하고 있다. 12월 8일의 **Investors' Day**에서 스위스재보험은 그룹의 전략적 체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스위스재보험은 이 체계 하에서 2016년에 시작되는 두 개의 새로운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에,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며, 이는 현재 보험침투율이 낮지만 부의 증가로 인해 재무적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성장시장에 특히 해당된다. 스위스재보험은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현재 시장에서의 공급과잉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룹 CEO Michel M. Liès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재보험은 자본비율이 건전하고, 고객중심적이며, 언더라이팅 역량, 포트폴리오 운영 및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 함으로써,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영환경을 효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자연재해의 경제적 비용은 지난 35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험은 리스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경제적 손실과 보험손실 간의 격차는 매우 큰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격차 문제를 다루는 일은 전 세계 보험업계의 입장에서 중요한 장기적 기회입니다.”

올해 실적 세부내역 (2014년 1-3분기와 2015년 1-3분기 비교)

		2015년 9개월	2014년 9개월
손해 재보험 (P&C)	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11 378	11 678
	순이익 (백만 달러)	2 274	2 385
	합산비율 (%)	84.8	82.7
	투자수익률 (%, 연환산)	3.8	3.6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23.3	25.1
생명 재보험 (L&H)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백만 달러)	8 091	8 440
	순이익 (백만 달러)	763	272
	영업이익률 (%)	10.7	8.8
	투자수익률 (%, 연환산)	3.6	3.3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7.0	5.9
Corporate Solutions	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2 521	2 574
	순이익 (백만 달러)	324	249
	합산비율 (%)	91.9	92.9
	투자수익률 (%, 연환산)	3.2	2.9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8.7	12.2
Admin Re[®]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백만 달러)	565	731
	순이익 (백만 달러)	270	219
	총 현금창출 (백만 달러)	265	615
	투자수익률 (%, 연환산)	4.8	5.0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6.1	4.9
그룹 통합 (합계)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백만 달러)	22 555	23 423
	순이익 (백만 달러)	3 659	3 255
	주당 순이익 (달러)	10.69	9.51
	투자수익률 (%, 연환산)	3.8	3.7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4.5	13.3

3분기 실적 세부내역 (2014년 3분기와 2015년 3분기 비교)

		Q3 2015	Q3 2014
손해 재보험 (P&C)	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4 108	4 305
	순이익 (백만 달러)	1 013	842
	합산비율 (%)	78.0	76.7
	투자수익률 (%, 연환산)	2.9	2.8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34.4	28.0
생명 재보험 (L&H)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백만 달러)	2 771	2 873
	순이익 (백만 달러)	268	160
	영업이익률 (%)	11.3	9.2
	투자수익률 (%, 연환산)	3.5	3.3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8.5	9.6
Corporate Solutions	경과보험료 (백만 달러)	796	903
	순이익 (백만 달러)	85	103
	합산비율 (%)	90.7	90.5
	투자수익률 (%, 연환산)	2.4	2.5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5.0	15.4
Admin Re®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백만 달러)	174	231
	순이익 (백만 달러)	21	54
	총 현금창출 (백만 달러)	126	142
	투자수익률 (%, 연환산)	4.2	5.2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5	3.5
그룹 통합 (합계)	경과보험료 및 수수료 (백만 달러)	7 849	8 312
	순이익 (백만 달러)	1 399	1 227
	주당 순이익 (달러)	4.09	3.59
	투자수익률 (%, 연환산)	3.2	3.5
	자기자본이익률 (%, 연환산)	17.3	14.8